

국제신문

독일 오월 축제 「마이페스트」 부산대서 즐기세요

5.19일 오후 2시 부산대 넉넉한터서 개최...부산대 등 부산지역 3개대 참가
독일 문화원, 학술진흥처, 대사관, 기업 등 참여해 한독 친교의 장 마련

2018.05.17.(목) 09:35 디지털뉴스팀1 기자



부산대학교는 한국해양대·부산외국어대 등과 함께 부산지역 3개 대학의 독일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독일의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를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로, 광장 등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2004년에 시작돼 매년 부산대 등 참여대학들이 번갈아가며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14회를 맞은 올해에는 「마이페스트」의 상징인 마이바움이 부산대 축제 현장에 세워져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부산대·한국해양대·부산외국어대 각 대학 학생들의 독일 민속춤 합창 등의 퍼포먼스, 다양한 친교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코너로 진행된다.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 판매 부스도 마련된다.

독일의 오월(5월)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Maifest)」를 재현한 행사가 19일 오후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개최돼 한·독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 독일문화원·독일학술진흥처·독일대사관과 독일계 기업 휘버·크롬바커·튀니에스 등 여러 독일 관련 기관들의 참여로 독일 연수·장학·취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 독일과 유럽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독일 오월 축제 '마이페스트' 부산대서 개최

5월19일 오후 2시 부산대 넉넉한터서 개최...부산대 등 부산지역 3개대 참가

2018.05.17.(목) 10:39 디지털본부 기자 multi@busan.com



독일의 오월(5월)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Maifest)'를 재현한 행사가 19일 오후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개최돼 한·독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부산대학교는 한국해양대·부산외국어대 등과 함께 부산지역 3개 대학의 독일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독일의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를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로, 광장 등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2004년에 시작돼 매년 부산대 등 참여대학들이 번갈아가며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14회를 맞은 올해에는 '마이페스트'의 상징인 마이바움이 부산대 축제 현장에 세워져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부산대·한국해양대·부산외국어대 각 대학 학생들의 독일 민속춤과 합창 등의 퍼포먼스, 다양한 친교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코너로 진행된다.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 판매 부스도 마련된다.

또, 독일문화원·독일학술진흥처·독일대사관과 독일계 기업 휘버·크롬바커·퇴니에스 등 여러 독일 관련 기관들의 참여로 독일 연수·장학·취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 독일과 유럽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부산대서 독일 5월 축제 '마이페스트' 개최

19일 오후 2~6시... 올해 14회째
한국해양대, 부산외대 등 참가

2018.05.17.(목) 13:49 전해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부산대는 한국해양대, 부산외대 등과 함께 독일의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를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7

일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로, 광장 등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부산에서는 2004년에 시작돼 매년 부산대 등 참여 대학들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14회를 맞은 올해에는 '마이페스트'의 상징인 마이바움이 부산대 축제 현장에 세워져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부산대, 한국해양대, 부산외대 각 대학 학생들의 독일 민속춤 합창 등의 퍼포먼스, 다양한 친교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코너로 진행된다.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 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 판매 부스도 마련된다.

또 독일문화원, 독일학술진흥처, 독일대사관과 독일계 기업 휘버, 크롬바커, 퇴니에스 등 여러 독일 관련 기관들의 참여로 독일연수, 장학, 취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 독일과 유럽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독일 전통마을 축제 ‘마이페스트’ 19일 부산대서 열린다

2018.05.17.(목) 09:16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오는 19일 부산대 교정에서 독일의 전통 마을 축제를 재현한 행사가 열린다.

부산대는 한국해양대, 부산외국어대 등과 함께 독일의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Maifest)를 19일 오후 2시 넉넉한터 광장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다.

광장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이번 축제에 부산대, 한국해양대, 부산외국어대 재학생과 독일 유학생들이 참가해 독일 민속춤, 합창 등 다양한 친교 행사를 연다.

축제장에는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 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이 선보인다.

독일문화원, 독일학술진흥처, 독일대사관, 독일계 기업 등이 부스를 마련해 독일 연수, 취업, 관광 등을 안내한다.

일간 리더스경제

부산대 독일 5월 축제 '마이페스트' 개최

2018.05.23.(수)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는 지난 19일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한국해양대·부산외국어대 등과 함께 부산지역 3개 대학의 독일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독일의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를 개최했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로, 광장 등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 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올해 축제는 부산대·한국해양대·부산외국어대 각 대학 학생들의 독일 민속춤 합창 등의 퍼포먼스, 다양한 친교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코너로 진행됐으며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 판매 부스도 설치됐다.

부산대 관계자는 "독일문화원·독일학술진흥처·독일대사관과 독일계 기업 휘버·크롬바커·퇴니에스 등 여러 독일 관련 기관들의 참여로 독일 연수·장학·취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 독일과 유럽을 좀 더 가까이 알아보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부산대, 19일 독일 전통 축제 '마이페스트' 개최

2018-05-18(금) 10:43 이현희 기자 hee@idomin.com



독일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를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해마다 5월이면 벌이는 마을 축제로, 광장 등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 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우고서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에서 유래했다.

부산에서는 2004년부터 행사를 시작해 해마다 부산대를 비롯한 참여대학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부산대·한국해양대·부산외국어대 각 대학 학생이 독일 민속춤과 합창 등 퍼포먼스, 다양한 친교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코너를 마련했다. 또한,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샐러드 등 독일 전통 음식 판매 부스도 준비했다.

독일의 5월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Maifest)가 부산대에서 재현해 한·독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17일 부산대는 한국해양대·부산외국어대 등 부산 지역 3개 대학의 독일 관련 학과 학생이 참여해

이밖에도 독일문화원·독일학술진흥처·독일대사관과 독일계 기업 휘버·크롬바커·퇴니에스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독일 연수·장학·취업 안내 부스를 운영, 독일과 유럽을 좀 더 알아가는 기회도 만들 예정이다.

독일축제 '마이페스트' 부산대서 즐기세요

2018.05.17.(목) 10:23 하경민 기자 yulnetphoto@newsis.com

부산대는 한국해양대, 부산외국어대 등과 함께 오는 19일 오후 2~6시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독일의 5월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로, 광장 등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부산에서는 2004년에 시작돼 매년 부산대 등 참여대학들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마이페스트의 상징인 마이바움이 부산대 축제 현장에 세워져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부산대·한국해양대·부산외대 등 각 대학 학생들의 독일 민속춤 합창 등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다양한 친교 게임과 행운권 추첨 등의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 판매 부스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독일문화원·독일학술진흥처·독일대사관과 독일계 기업 휘버·크롬바커·퇴니에스 등 여러 독일 관련 기관들이 행사에 참여해 독일 연수·장학·취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독일 맥주 축제 '마이페스트' 19일 부산대서 열린다

2018.05.17.(목) 14:08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부산지역 3개 대학이 19일 오후 2시~6시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독일 전통축제 '마이페스트

(Maifest)'를 개최한다.

부산대는 한국해양대와 부산외국어대 등 독일 관련 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독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다. 광장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부산에서 열리는 마이페스트는 2004년에 시작돼, 부산대를 포함한 참여대학들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14회를 맞은 올해에는 축제의 상징인 마이바움이 축제 현장에 세워진다.

올해 축제는 3개 대학 학생들이 독일 민속춤과 합창, 다양한 친교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코너로 진행된다.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 판매 부스도 마련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독일문화원·독일학술진흥처·독일 대사관과 독일계 기업 휘버·크롬바커·퇴니에스 등 여러 기관이 독일 연수·장학·취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며 "독일과 유럽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독일 전통 축제 '마이페스트' 연다.. 19일

부산지역 독일 학생들 참여

2018.05.17.(목) 10:06 나동욱 기자 moai@veritas-a.com



부산대는 한국해양대/부산외국어대 등과 함께 19일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부산지역 3개 대학의 독일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독일 전통 축제 '마이페스트'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로, 광장 등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2004년에 시작된 행사는 매년 부산대 등 참여대학들이 번갈아가며 열고 있다. 14회를 맞은 올해는 '마이페스트'의 상징인 마이바움이 부산대 축제 현장에 세워져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부산대/한국해양대/부산외국어대 각 대학 학생들의 독일 민속춤 합창 등의 퍼포먼스, 다양한 친교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코너로 진행된다.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 판매 부스도 마련된다. 독일문화원/독일학술진흥처/독일대사관과 독일계 기업 휘버/크롬바커/퇴니에스 등 여러 독일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독일 연수/장학/취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독일 5월 축제 ‘마이페스트’, 19일 부산대서 열린다

2018.05.17.(목) 10:09 신유경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독일의 5월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Maifest)’를 재현한 행사가 오는 19일(토) 오후 부산대학교 너덕한터 광장에서 개최돼 한·독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부산대는 “한국해양대, 부산외국어대와 함께 부산 지역 3개 대학의 독일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독일의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를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산대 너덕한터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로, 광장 등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2004년에 시작돼 매년 부산대 등 참여대학들이 번갈아가며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14회를 맞은 올해에는 마이페스트의 상징인 마이바움이 부산대 축제현장에 세워져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부산대와 한국해양대, 부산외국어대 각 대학 학생들의 △독일 민속춤, 합창 등의 퍼포먼스 △다양한 친교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코너로 진행된다.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 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 판매 부스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독일문화원 △독일학술진흥처 △독일 대사관 △독일계 기업 휘버·크롬바커·퇴니에스 등 여러 독일 관련 기관들의 참여로 독일 연수와 장학, 취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가 운영되어 독일과 유럽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제일일보

<http://www.ujeil.com>

독일 전통 축제 '마이페스트' 부산서 열린다

맥주 시음회·독일 전통 음식 등 다채... 19일 넉넉한터 광장

2018.05.17.(목) 10:35 김종창 기자 0049k@naver.com

독일의 전통 마을 축제인 '마이페스트'(Maifest)를 재현한 행사가 19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대는 한국해양대, 부산외국어대 등과 함께 독일의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Maifest)를 19일 오후 2시 넉넉한터 광장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다.

광장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이번 축제에 부산대, 한국해양대, 부산외국어대 재학생과 독일 유학생들이 참가해 독일 민속춤, 합창 등의 퍼포먼스, 다양한 친교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코너로 진행된다.

축제장에는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 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이 선보인다. 독일문화원, 독일학술진흥처, 독일대사관, 독일계 기업 등이 부스를 마련해 독일 연수, 취업, 관광 등을 안내한다.

독일 전통 축제 마이페스트, 부산 상륙한다

2018.05.17.(목) 09:32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독일의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Maifest)가 부산에 상륙한다.

부산대는 한국해양대, 부산외국어대 등과 함께 독일의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를 19일 오후 2시 넉넉한터 광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열리는 마을 축제다. 광장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 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에서 비롯됐다.

이번 축제에 부산대, 한국해양대, 부산외국어대 재학생과 독일 유학생들이 참가해 독일 민속춤, 합창 등 다양한 친교 행사를 연다.

축제장에는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 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도 공개될 예정이다.

독일문화원, 독일학술진흥처, 독일대사관, 독일계 기업 등이 부스를 마련해 독일 연수, 취업, 관광 등을 안내한다.

독일 5월 축제 '마이페스트' 19일 부산대서 개최

독일 문화원·학술진흥처·대사관·기업 등 참여해 한·독 친교의 장 마련

2018.05.18.(금) 08:22 이수현 기자



독일의 5월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 (Maifest)'를 재현한 행사가 개최돼 한·독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부산대학교는 한국해양대·부산외국어대 등과 함께 부산지역 3개 대학의 독일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독일의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를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산대 너넉한터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로, 광장 등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2004년에 시작돼 매년 부산대 등 참여대학들이 번갈아가며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14회를 맞은 올해에는 '마이페스트'의 상징인 마이바움이 부산대 축제 현장에 세워져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부산대·한국해양대·부산외국어대 각 대학 학생들의 독일 민속춤 합창 등의 퍼포먼스, 다양한 친교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코너로 진행된다.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 판매 부스도 마련된다.

또한, 독일문화원·독일학술진흥처·독일대사관과 독일계 기업 휘버·크롬바커·튀니에스 등 여러 독일 관련 기관들의 참여로 독일 연수·장학·취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 독일과 유럽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부산대, 19일 독일 5월 전통축제 '마이페스트' 행사

2018-05-18(금) 15:54 조아현 기자 choah4586@news1.kr



독일에서 열리는 오월 전통 축제인 '마이페스트 (Maifest)'를 재현한 행사가 오는 19일 오후 부산 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한국과 독일 간에 문화를 교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부산대와 한국해양대, 부산외대 등 부산지역 3개 대학 독일어 관련 학과 학생들은 이날 마이페스트에 참가해 민속춤과 퍼포먼스, 합창 등을 선보인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대 넉넉한 터 광장에서 진행된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해마다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다. 마을 광장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마이페스트'를 재현하는 축제가 시작된 이래로 매년 부산대, 한국해양대, 부산외대가 번갈아 가면서 행사를 주관해 왔다.

올해 14번째 축제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마이페스트의 상징인 마이바움이 부산대 축제 현장에 실제로 세워진다.

한편 독일문화원, 독일학술진흥처, 독일대사관과 독일계 기업 휘버, 크롬바커, 튀니에스 등 다양한 독일 관련 기관들이 참가해 독일 연수와 장학프로그램, 취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